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왕

-구유 만들기-

교안 · 양종규 사무엘 / 만들기 · 김두심 엘리사벳

학습목표

-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 구유를 만들며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준비물

과자 상자(뚜껑이 위로 열리는 것), 플라스틱 용기(과자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황토색 스타핑(또는 황토색 종이를 얇게 잘라서 쓴다.), 색지(과자 상자의 안과 밖을 덮을 수 있을 정도), 풀, 가위, 색연필, 양면테이프, 벨 크로 테이프(찍찍이), 솜구슬, 부직포, 솜, 네임펜, 두꺼운 도화지, 인물 · 동물 도안

※인물 · 동물 도안은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바라보기 (5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기다리는 내내 설레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빨리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도 하지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여러분은 대림절을 어떻

게 보내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반면, 어떤 친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짜증이나 화를 내기도 할 거예요.

과연 어느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일까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지 구유를 만들며 배워 보기로 해요.

다음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청와대〉



〈백악관〉



〈버킹엄 궁전〉

모두가 알다시피 첫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영국 왕실인 버킹엄 궁전이랍니다. 사진으로 세 장소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한 나라의 높은 분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크고 웅장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소나 말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인 구유에 눕혀지셨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백성의 왕이신 분이데, 왜 세상의 왕들처럼 넓고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알아보기 (40분)

1.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2.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 눕혔나요?
3. 예수님을 경배하러 누가 찾아왔나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마태 1, 18-2, 12; 루카 2, 1-20)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에서 살았는데, 로마제국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

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왕들과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아끼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고장에는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서둘러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요.

한편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은 각각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은 왕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왕이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향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웠던 향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요.

전통적으로 구유에는 아기 예수님 옆에 소와 나귀가 있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동이 따로따로 서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 후 12일인, 주의 공현 대축일에 아기 예수님 옆에 놓이게 돼요. 예수님께서서 다른 나라 사람인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걸 보여 주지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구유를 세상에 널리 퍼뜨린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예요. 성인은 베들레헴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서 누우셨던 구유를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감동과 성탄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전해 주고자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본떠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널리 퍼져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랍니다.

작업

어때요? 구유에 얹힌 궁금중들이 많이 풀렸나요? 그러면 성탄 구유와 관련된 예화를 함께 읽어 보고, 구유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해요.

1. 역할(해설, 임금님, 사람1·2·3, 소녀)을 정하여 아래 예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① 사람들은 어떤 재료로 구유를 만들어 왔나요?
 - ② 소녀는 구유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 ③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2. 과자 상자를 이용해 구유를 만들어 본다.

☞ [교 사에게]

구유 만들기를 할 때 가급적 과자를 나누어 주고 남은 상자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상자를 활용하면 구유를 만들 때 재료보다는 거기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 예화

<1>

해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어.

임금님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정성과 사랑을 담아 구유를 만들도록 하여라. 아기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는 구유를 만든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2>

해설 사람들은 어떤 구유를 만들지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

사람1 도대체 아기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는 구유는 어떤 걸까?

사람2 값비싼 보물로 만든 구유일까? 아니면 희한한 재료로 만든 구유일까?

사람3 나는 도무지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유를 만들지?

<3>

해설 마침내 임금님이 말씀하신 성탄절 전날이 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구유를 들고 임금님 앞에 모였어. 사람들이 가져온 구유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구유가 있었어.

사람1 어머니, 저 구유 좀 봐요. 온갖 보석으로 꾸몄어.

사람2 글썄 말이에요. 어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어.

해설 사람들이 놀라는 중에 임금님은 그 빛나는 구유에 예쁜 아기 인형을 올려놓았어. 그랬더니 그 인형이 구유와 같은 보석으로 변하고 말았어. 임금님은 실망하고 말았어.

임금님 이 구유에는 보석을 자랑하려는 마음만이 담겨 있구나!

<4>

해설 임금님은 다른 사람들의 구유를 차례로 살펴보던 중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조각가의 구유를 보게 되었어. 이 구유는 멋진 대리석을 조각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그 멋진 모습에 감탄했어.

사람1 우와 멋진 구유인 걸.

사람3 정말 그럴래요. 이렇게 멋진 구유라면 임금님의 상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해설 하지만 임금님이 인형을 몰리자 이번에는 인형이 돌로 변하고 말았어.

임금님 이번에도 자기 멋진 생각하는 구유였구나!

해설 임금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구유에 인형을 올려놓았어. 하지만 인형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변하고 말았어.

<5>

임금님 이런, 이런! 정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구유는 없단 말인가?

해설 실망하는 임금님의 눈에 누더기를 입은 한 소녀가 보였어. 소녀는 사람들 뒤로 조용히 숨어 있었지만 그 손에는 구유가 들려 있었어.

임금님 애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너라.

해설 소녀의 손에는 여러 가지 천과 구슬, 나무들로 만든 보잘 것 없는 구유가 들려 있었어. 사람들은 그 구유를 보고는 수군거렸어.

사람2 어머니, 저런 것도 구유라고 들고 왔네요.

사람3 글썄 말이에요. 저 애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구유’라는 말씀을 못 들었나 봐요. 호호.

<6>

해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더기 구유에 놓여진 인형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인형이 아주 아름다운 웃음을 지닌 아기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임금님 이것이 내가 찾던 구유다. 너는 이 구유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녀 저는 동생과 함께 어렵게 사는 소녀입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구유를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의 힘든 일을 도와주고, 아플 때 돌봐 주면서 그 대가로 받은 예쁜 천이나 구슬 같은 것으로 구유를 만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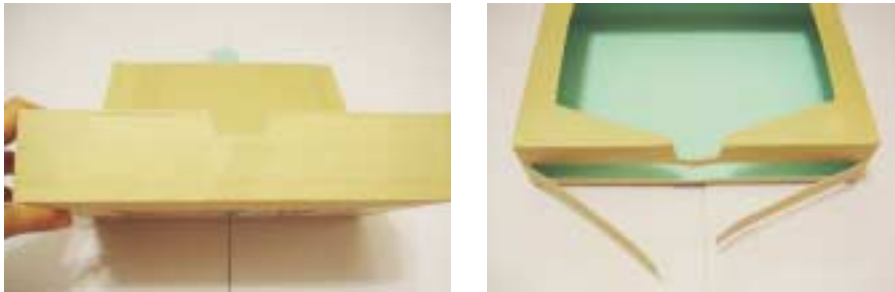
임금님 정말로 훌륭하구나!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해설 사람들은 그제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자신들이 욕심 부린 것을 뉘우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어.

· 구유 만들기



① 과자 상자에 색지를 깔끔하게 붙인다.



② 사진과 같이 상자에 연필로 선을 긋고 칼로 자른다.



③ 뚜껑과 상자 바닥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서 잠금 장치를 만든다.



④ 플라스틱 용기를 자른 다음 바닥에 솜을 붙여 구유를 만든다.



⑤ 사각형으로 자른 부직포에 사진과 같이 솜구슬을 붙인다.



⑥ 부직포를 아기 포대기 모양으로 싼 다음, 아래쪽을 솜으로 채워 입체감을 준다.



⑦ 솜구슬에 눈을 그려서 완성한 아기 예수님 모형을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구유에 붙인다.



⑧ '인물·동물 도안'을 인쇄하여 색연필로 칠한 뒤 두꺼운 도화지에 붙여 오린다.



⑨ 상자에 인물·동물들을 붙일 곳을 정하고, 해당 위치와 도안 뒷면에 벨크로 테이프를 붙인다.



⑩ 상자 속에 황토색 스타핑을 넣고 가운데 구유를 놓는다.



⑪ 보관과 이동 시에는 도안들을 떼어 내 상자에 담는다.



⑫ 정한 곳에 인물·동물 도안을 붙여 구유를 완성한다.

살아가기 (5분)

흔히 왕이라 하면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밖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우리는 미사 시간과 교리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또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피해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무어라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얘야, 불품없는 마구간에 서 태어난 게 나였던 것처럼, 너희 주변에 이웃들도 곧 나란다.’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 우리가 만든 구유를 자주 펼쳐 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아침 기도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어린이 미사 110번)

양종규 사무엘
본지 기자

김두심 엘리사벳
독서교육 전문가, 북아트 전문가. 서울대교구 도림동과 월계동 성당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6년, 지구 월례교육 강사로 1년간 봉사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디다케 교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연구원, 살레시오 교육 문화원 독서강사.